

이만희 의원, “내년 정부예산 12조 삭감, 국채 77조 축소” 천명

국민의힘, 내년 정부예산 심사 5대 원칙 확정 발표
 “국민 70% 반대 이재명 ‘선거지원금’, 심의 대상 아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아동수당 지원은 확대



슈퍼 예산(안) 편성을 두고 “국민도, 정책도, 희망도 없는 3無 예산안”이라며 비난하고, 미래세대에 빛 떠넘기는 文정부 12조원 먹튀 예산에 대한 삭감을 강력하게 예고해 왔었다.

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예결위 소위가 시작되는 이날 “소위심의 5대 원칙 및 국민과의 동행사업으로 발굴한 10대 주요 증액 사업”을 발표하고, “국민 70%가 반대하는 이재명 ‘선거지원금’, 심의 대상 아니다”며 정부 선심성 예산 등 12조원을 삭감해 10조원 민생예산으로 전환해 ▲국민과의 동행사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아동수당지원 대상 확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참전 수당 인상, ▲코로나 방역 의료진과 검사인력 위한 특별 수당 등을 포함시킨다는 각오다.

국민의힘 예산 5대 원칙은 ▲첫째, 정부 제출 내년도 예산안 604.4조원 감액 조정 ▲둘째, 적자국채 77.6조원을 대폭 축소하 ▲셋째,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차기정부 부담 전가 예산 최우선 삭감 ▲넷째, 선거 선심성 사업 검증 ▲다섯째, 삭감재원 활용 국민 동행사업 확대 등이다.

<2면에 계속> 장지수 기자



경북, 2022년 수능 응시생 지난해보다 439명 증가한 2만280명

영천 67명 증가한 595명, 전국 1만6,387명 증가 50만9,821명
 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고3 수험생에 600개 간식 전달
 경북도, 결시율 11.52%...영천 고득점(340점)↑↑ 3명 그칠 듯

위드(With) 코로나 속에 2022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이 올해는 연기없이 지난 18일 예정대로 치러졌다.

낮 최고 기온 15℃ 내외로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가운데 수능한파 없이 전국에서 50만9,821명이 86개 지구 1,300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렀다.

응시자는 지난해(49만3,434명)보다 1만6,387명(3.3%) 늘어난 50만9,821명이, 경북은 439명 증가한 2

만280명이 73개 고사장에서 시험을 마쳤다.

영천지역은 재수생 포함 9개 고등학교에서 지난해(528명)보다 67명이 많은 595명(남 288, 여 307명)이 81지구 제7고사장(영천고)과 제8고사장(영천여고)에서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을 완료했다.

경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 경북에서만 9,233명이 불참한 가운데 결시율은 지난해(13.12%)보다 1.6% 감소한 11.52%로 나타났

다. 관계자는 “올해 수능은 대체로 힘든 수준이었다”면서 “가채점 받은 결과 영천의 경우 고득점(340점) 이상 학생은 3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수능시험 성적 통지일은 다음달 10일이며 16일까지 수시모집 합격자가 발표되고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는 정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한편, 영천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원호)는 앞서 지난 9일 지역 9개 고등학교 고3 수험생들에게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잘 치르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한다”면서 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간식 600여개를 교육청에 전달했다.



영천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을 성실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김선 영천시 가락중친회 회장
 전화 053)755-750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8-6, 성광빌딩 406호



복잡해진 세법과 세금은 세무전문가에 맡겨 주세요
세무회계 바로 운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영천시 성내동 191-17(서문오거리)

영동고등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202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스마트 교실·그린학교 배움과 쉼이 있는 혁신공간

신입생 입학 상담실 운영

장소 : 본관 2층 휴게실
 기간 : 현재 ~ 2021.12.14(화)
 문의전화:054) 334-4536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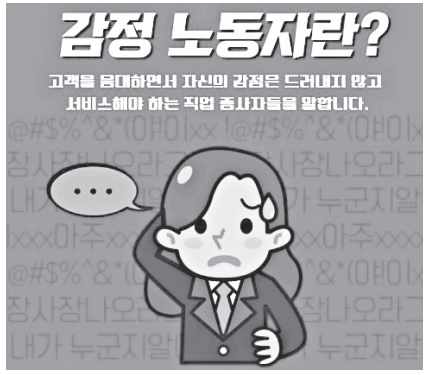
- 모집인원 남학생 132명 (6학급)
- 지원자격 가. 경상북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나.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자
- 교부 및 접수기간 2021. 12. 9(목) ~ 12.14(화)
- 합격자 발표 가. 일시 : 2021. 12. 23(목) 12:00
나. 장소 : 고입전형포털, 본교 홈페이지 및 나이스 온라인 고입전형 시스템에서 확인 (<http://school.gyo6.net/youngdonghs>)
- 합격자 등록 2021. 12. 23(목) ~ 28(화)(고입전형포털에서 등록)

대입 성공의 길, 영동고등학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선택·집중·자율 변화에 앞장서다. (미래를 활짝 여는 창의적 인재육성)

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경북 23개 시·군 최초 제정 시동

<본지 취재후 조례 철회>

"감정노동자를 명분으로 제식구(공무원) 감싸는 조례 만드나?" 비난



경북 구미시가 道내 23개 시·군 중 가장 먼저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

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 형태를 의미한다.

이같은 업종에는 백화점, 호텔, 마트 종사자, 전화상담원, 은행 창구, 항공기승무원 등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국에 740만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 244개 지자체 중 56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입법예고 중이다. 그 중 구미시는 지난 10월 25일 입법예고하고 지난 14일까지가 주민 의견 수렴기간으로 조례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려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가 일반 근

로자가 아닌 지자체 공무원이나 또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있어 일반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을 위한 조례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만든 성남시의 경우 이법의 집행의무자인 '감정노동사용자'의 정의를 『성남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로 특정해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사고있다.

특히 이를 벤치마킹한 여타 지자

체 등도 대부분 덩달아 성남시와 동일하거나 조례를 유사하게 제정해 한마디로 공무원을 위한 법(조례)이라는 오명을 쓰고있어 시민단체들로부터 외면을 받고있다.

이같은 조례제정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이다. 사업주(사용자)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일반 근로자를 위한 법이다.

즉,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고객과의 문제 발생 시 대처방법 등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건강장해 예방 교육 등의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고있다.

이 때문에 대구시 A시민단체 대표는 "최근 공무원 노조 및 연맹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사를 자주 접하고 있다. 지자체까지 나서서 이같은 조례까지 만들어 직원의 보호를 한다는 것이 일부 민원대상 공무원을 위한 것인지 시가 시민과의 관계를 멀리하고자 미리 엄포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한다.

전국 학부모 단체 한 관계자도 "국민들은 울음을 삼키며 삶을 이어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감정노동자를 명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 앞장서는 지자체는 누구를 위한 지자체인지 모르겠다"며 비난에 가세했다.

이 조례는 본지 취재후 철회됐다.

김효정 기자

"내년 정부예산 12조 삭감, 국채 77조 축소" 천명

<1면에 이어>

※국민의힘 文정부 예산 심사 5대 원칙 세부 10대 주요정책사업

첫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동행사업으로, ①손실보상과 경영위기 2배지원을 위한 3조 5,000억원, ②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을 위한 3,000억원, ③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종사자 등 코로나19 피해 근로취약계층에 1인당 80만원을 추가지원위한 1,376억원

둘째, 미래세대와의 동행사업으로 ④아동수당지원 대상을 내년도 만8

세→만 10세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8,000억원, ⑤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10%인상을 위한 2,126억원, ⑥교사겸직원장과 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치료사 처우개선비 305억원

※교사겸직원장(월 7.5만원), 담임교사(+2만원), 연장보육교사(+1만원), 장애아 보육교사와 치료사(+20만원)

셋째, 농민·취약계층과의 동행사업으로 ⑦취약계층 우리농산물 구입과 초등생 과일간식지원을 위한 374억원, ⑧장애인 수당 2배 인상을 위한 1,405억원, ⑨일분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단가 50% 인상 2억원

※(기초) 2~4→4~8만원 / (차상위, 중증·경증장애아동) 2~20→4~40만

원 인상

넷째,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과의 동행사업으로 ⑩참전·무공·공로수당 10만원 인상을 위한 1,865억원, ⑪코로나방역에 고생하는 의료진, 검사인력을 위한 특별수당 606억원

마지막으로, 재외국민과의 동행사업으로 ⑫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저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250억원, ⑬ 재일민단 지원확대를 위한 25억원 등으로 확인됐다.

이만희 예결위 간사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으로 포장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지원금 예산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논란은 물론 정부반대에도 직면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민의 힘은 어려움이 있는 곳에 국민세금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화산농협, 마늘 종자산업기반구축 고품질 마늘주아종구 보급 확대 탄력

영천화산농협(조합장 정낙은)이 씨마늘 생산기반으로 마늘주아종구 확대 보급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화산농협은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2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 선정돼 국비 544억(총 사업비 1,813백만원=도비 163, 시비 380, 자부담 726)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화산농협에 새 생산설비가 완료되면 그동안 보유 시설 및 장비 가동일수가 포화상태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주아종구 수요량 생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 화산농협은 선별장(990㎡) 및 생산시설 9종 등을 추가 확보해 마늘 주아종구를 영천시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내 마늘 가격 상승으로 중국산



마늘 종자 유입 증대와 연작에 따른 종자퇴화의 영향으로 각종 병해충 발생 증가 및 수량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마늘 주아종구에 대한 농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마늘종구(주아재배)는 통상 마늘수확시 마늘종의 씨를 받아 2월 말에 파종하면 같은 해 6월(4개월뒤) 통마늘로 수확하게 되는데, 이 통마늘을 같은해 가을 본 밭에 심으면 정상적인 마늘로 생산하게 되고, 이 마늘을 새로운 종구(씨마늘)로 농가에 보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

영천소방서, 겨울철 교통사고 대응 차량구조훈련

영천소방서(서장 김재훈)는 지난 17일 영천시 고경면 소재 동부종합폐차장에서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 대비 차량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대비훈련으로 현장표준 작전절차 대응매뉴얼을 바탕으로 안전 확보 및 신속한 구조를 위한 개방(절단) 훈련을 중점 실시했다.

김재훈 소방서장은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 발생 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평소와 같은 훈련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생활체육관, 12일 코로나 접종센터 철수

19일 기준 1·2차 합계접종 45,502명, 접종율84.45%

영천시는 영천생활체육관 내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부스터샷은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시행한다.

영천시 예방접종센터가 지난 4월 8일 개소하여 이달 12일까지 접종을 실시해 약 8개월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은 시민은 1차 23,086명, 2차 22,416명으로 총 45,502명이다.

영천시 전체 예방접종률은 11.

19일 기준 시민 101,294명 중 1차 접종 87,120명(86.0%), 2차도 83,924명(82.9%)이 접종을 완료했고, 경상북도는 1차 81.5%, 2차 78.0%이며, 전국은 1차 82.1%, 2차 78.6%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예방접종센터가 직원 및 유관기관의 지원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감사드린다. 11월 말까지 영천생활체육관 시설을 원상복구할 계획이며, 부스터샷 및 미접종자들은 지역 내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천별빛한우, 드라이브스루 이틀간 8,500만원 차량 1,063대

새롭게 선보인 별빛한우·영천와인 콜라보세트 판매는 기대 못미쳐

위드(With) 코로나 속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역 농·수·축산물 판매 비대면화도 지속되고 있다.

영천축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진수)은 지난(13,14) 토·일 양일간 영천별빛한우사업단과 공동으로 시민운동장에서 비대면 「2021 영천별빛한우 및 With영천와인 드라이브스루 판매행사」를 실시해 행사 참여 차량 1,063대에 총 8,553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행사에서는 첫 날 오전부터 구매 차량

이 몰려 영천별빛한우와 영천와인을 콜라보해 새롭게 선보인 세트 상품 판매까지 기대했으나 연휴인데다 첫날 5,311만원(차량 619대), 둘째날 3,242만원(433대)으로 총 8,553만원 판매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참여차량은 628대 매출은 3,647만원이 줄어든 수치다.

축협은 2020년 이맘 때도 이같은 행사로 차량 1,619대에 1억2천 2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간에는 '속라이브'에서 영천별빛한우 5종(등심, 채끝, 불고기, 국거리, 양지)을 비대면 온라인 판매로 5,400세트를 완판해 1억1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올해 7월에도 KBS2TV '랜선장터-보는

날이장날'에서 영천별빛한우 500세트를 방송 10여 분만에 완판되면서 전국 비대면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는 등 전국 대형쇼핑몰 20여 곳과 지속적인 비대면 온라인 판매 확대를 계획이어서 당분간 축협의 이같은 비대면 축산물 판매는 이어질 전망이다.

한우 관계자는 "한우 불고기, 우유, 스틱 꿀 등 축산물 시식물 준비로 대기손님께 다양한 음식을 제공했다"며 "방문해 주신 소비자께 감사드리다"고 말하고, 또 "내년에도 이같은 기회가 주어지면 영천별빛한우의 우수성을 더욱 알리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김장 김치로 이웃 사랑 실천... 120여명 참여 배추 5천 포기로 1,085박스

영천시새마을부녀회 2021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영천시새마을부녀회(회장 최분순) 지역 회원 120여명이 지난 17일 새마을회관 전

정에서 '2021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갖고 지역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 이웃에 대한 겨울김장 사랑나눔 준비를 마쳤다.

새마을부녀회의 이같은 김장김치 행사는 코

로나19로 지난해에는 추진하지 못했다.

올해는 금호읍 소재 새마을농장에서 지난 8월 파종한 배추를 이달 12일부터 직접 수확해 각 읍면동 분회에서 3~4일 간 절임, 양념 재료, 포장 용기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이곳 행사장으로 이송해 5,000포기를 버물러 1,085박스 포장용기에 담았다.

또 회원들은 이날 담근 김장과 함께 수확한 감자 80박스도 복직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인 장애인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우선지원 수혜대상자를 각 읍면동에서 신청받아 배분된다.

영천에는 새마을 관련 지도자 800여명이 등록돼 있고, 일반 등록 회원수는 모두 15,000명에 이른다. 이날 김장 담그기에는 최기문 영천

시장을 비롯해 새마을지회 및 각 읍면동 분회 회원 7명씩 등 모두 120명이 새마을조끼와 앞치마 착용, 버물림 장갑으로 사전 준비를 갖추어 행사에 참석했다.

영천시새마을부녀회는 평소에도 '사랑의 집고쳐주기', 사랑의 쌀독, '연탄나누기', 이동목욕 및 빨래봉사 등 사회공동체 운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최분순 새마을부녀회장은 "김치 나눔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새마을 회원들의 마음이 전해져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나기를 바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진정한 이웃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영천시새마을부녀회에서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장지수 기자



한의마을 특별한 날... 야외 결혼식 개방으로 새 변신

영천의 랜드마크 '한의마을'이 새로운 변신을 시도한다. 야외 결혼식 개방으로 운영의 새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 한의마을 운영을 맡은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훈)은 "지난 6일 한의마을의 새로운 변신을 위한 공단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김재훈 이사장은 "보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에게 한의마을만의 특색있는 문화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예식 장소 대관을 결정했다.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 한의마을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했다.

공단은 또 시범 운영 후 대관료, 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영천시와 협의해 야외 결혼식장 개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영천의 랜드마크 '한의마을'이 새로운 변신을 시도한다. 야외 결혼식 개방으로 운영의 새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훈 이사장은 "보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에게 한의마을만의 특색있는 문화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예식 장소 대관을 결정했다.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 한의마을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했다.

공단은 또 시범 운영 후 대관료, 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영천시와 협의해 야외 결혼식장 개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8회 영천대마기 전국종합마술대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영천시 승마협회

은해사 창건 1212주년 ‘개산대재’·‘은빛문화제’에 영천시·경북도, 2억7800만원의 거액 보조금 지원 논란

20일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제
21일 개산대재 법요식
이틀간 대장정 막 내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직무대행 혜안스님) 창건 1212주년 개산대재 법요식이 지난 21일 은해사 육화원 전정에서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제’(20일)에 이어 봉행됐다.

은해사 조실 中和(중화) 法院(법타) 대종사는 이날 법어자리에서 "은해사는 신라 해철국사(AD771~847)께서 개산(산문을 연) 이래 중생(衆生)을 위해 지역 정신문화의 중심으로 기여해 왔다"면서 "일상에서 도(道)를 찾고, 자기자신을 위해 숨기지 말 것"을 주문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 및 조계종 총무원이 후원하고,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가 주관한 이번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제'는 '도·시민이 함께하는 산중 화모니로 지난 20일부터 화려한 막을 올렸다.

지난 20일인 첫 날 청통풍물단 길

놀이로 시작으로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경천신명회(敬天神明會) 굿거리 공연에 이어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밴드의 개막공연과 마지막 날인 21일 개산대재 법요식 및 대미의 '은빛음악회'로 모처럼 불교인들을 산중 화모니를 이루면서 이틀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이날 개산대재 법요식에는 박종규 신도회장과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해 이철우 도지사를 대신한 김상철 경북도 문체국장,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이만희 의원,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 및 지역 시·도 의원과 정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영천시·경북도, 2억7,800만원 거액 보조금 지원 논란

하지만 지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영천시가 이 행사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지역 한 단체장 A씨는 수억원의 보조금 지원 사실을 확인하고 "코로나19로 시민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로 감감감치 한 조각이라도 나누는 이때 거액의 혈세를 사찰에 지원하는 것은 선거를 위한 표를 의식한것 아니냐"며 영천시를 맹

비난하고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시의회 역시 공범이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해 왔다.

확인 결과 이번 행사를 위해 경북도에서 8,200만원, 영천시가 1억 9,600만원 등 2억7,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행사를 치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올해 역시 코로나19로 당초 10월 계획 행사가 취소(담당은 연기)됐으나 위드(With) 코로나를 핑계로 뒤늦게 강행한 것으로 파악돼 혈세 낭비 지적과 함께 시민여론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은해사 신도회 핵심 관계자는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신도회가 아는게 없다"고 말했고, 은해사 사무국에서는 "우리가 답변 할 사안이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영천시는 특정 종교계 행사에 거액의 예산 집행과 관련한 지적에 "이번 예산 지원은 은해사 개산대재에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다"면서 " '행복영천 은빛음악회'에 7,800만원,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제'에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다시한 번 더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이 예산은 영천시의 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코로나19로 취소되었다가 무슨 이유로 강행되었는지, 또 타 문화행사(영천문화제 1억, 왕평가요제 1억)와 비교해 두 배 이상 과다하게 지원된 것, 선거를 의식한 표밭 다지기 선심성 지원 등의 논란은 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지수 기자

내년 봄감자 12월까지 정부보급종 신청

강원도 수미·서흥 2품종
20kg 32,960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영천시는 봄감자 정부 보급종을 11일부터 신청 접수 받고 있다. 재배희망농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공급종은 강원도에서 생산한 정부보급종으로 수미와 서흥 2품

종이다. 구입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20kg 상자 당 32,960원이다.

시는 "순도가 높고 품종 고유 특성이 잘 보존되어 있어 농가에서 자가 채종하여 재배하는 것보다 고품질 감자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종자 소요량은 10a(300평)당 150~160kg 기준을 고려해 신청하면 된다. 공급량이 확정되면 지역 농협



을 통해 내년 1월 말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보현산댐 짚와이어,페이백 이벤트

5만원 이상 이용
이달 30일까지
최대 3만원 상품권 페이백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0일부터 보현산 짚와이어 운영을 재개하면서 짚와이어 이용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금액의 일부를 영천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10월 ~ 30일까지 진행되며, 매표소에서 티켓을 발급

하여 짚와이어를 이용한 후 매표 담당자에게 티켓을 제출하면 기준에 따라 영천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지금 기준은 이용 금액에 따라 5만~10만원 미만은 1만원권, 10~15만원은 2만원권, 15만~20만 미만은 3만원권으로, 일행 별 최대 3만원까지 페이백이 가능하다.

보현산댐 짚와이어는 탑승 거리 1,411m를 최고 100km/h 속도를 체험할 수 있는 레포츠 시설로 현장 방문 및 인터파크티켓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완산동 미소지움 1·2차, e편한세상 아파트 순환버스 운행

영천시 완산동 미소지움·이편한 아파트 주민들이 영천역과 영천전통시장 장보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영천시는 지난 15일부터 완산지구 대단위 아파트(미소지움 1·2차, e편한세상) 입주에 따라 변화된 대중교통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이같은 완

산지구 순환 버스노선 임시운행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완산지구 순환 버스노선(6번)은 표와 같이 완산지구-영천농협-영천초등학교-영천역을 1일 20회 순환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임시 운행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정식 노선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완산지구 임시순환 버스 노선도 및 배차시간

노선번호	운행시간 (50회 운행)	경유지			
6	06:35	10:00	14:00	18:00	미소지움1차-미소지움2차-e편한세상-시정사거리-영천농협-영천초등학교-상용회계소건너-영천역-시정사거리-국민은행-남부버스터미널-미소지움1차
	07:00	10:25	14:25	18:25	
	07:25	10:50	14:50	18:50	
	07:50	11:15	15:15	19:15	
	08:15	11:40	15:40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이 오는 12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고 영천시가 19일 밝혔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녹비종자 구입비와 유기농업 자재 및 자재 원료, 천적 구입비를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토양검정 및 시

비처방 컨설팅 사업이 추가로 신설되어 일반 농가의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친환경 인증 면적 증가를 도모한다.

신청대상은 당초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일반 농가까지 확대돼 내년 부터 일반 농가도 유기농업 자재 구입비를 최대 50%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사업 신청서와 신청

연도 또는 전년도 토양검정 결과를 지참해야 한다.

유기농업 자재는 ha당 총 구입비 기준 유기 인증 농가는 200만원, 무농약 인증 농가는 150만원, 일반 농가는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녹비작물종자는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등을 지원한다.

오디오북 키오스크(KIOSK) 아시나요?

디지털북 체험공간 운영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오디오북 키오스크가 영천에도 설치됐다. 오디오북 키오스크(KIOSK)는 글을 읽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소리로 듣는 독서 콘텐츠다.

영천시립도서관은 지난 15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이같은 공모사업에 국비 1800만원을 들여 '지역 연계 디지털북 체험공간 사업'을 오픈해 이달부터 도서관 종합자

료실 내에 전용 단말기와 오디오북 키오스크 등을 설치 운영한다.

코로나19로 도서관 개관 일수가 줄고 일반 장서의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디지털콘텐츠(전자책+오디오북)의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어 이번 디지털북 체험공간 설치로 7,800여 종의 전자책과 150여 종의 오디오북을 체험할 수 있다.

이용은 무료이며 별도의 절차를 통해 본인의 스마트 기기에서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폴리텍 로봇캠퍼스, UR로봇코리아 외 4개사와 협약 체결

맞춤형 교육·우수 기술인력 양성 협약 체결

한국폴리텍 영천로봇캠퍼스(이하 로봇캠퍼스)가 유니버설로봇사(이하 UR사)를 비롯해 다스코리아(주), 성원교역(주), ㈜이티에스, 주식회사 일렉트릭스 4사 등과 파트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산-학 교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로봇캠퍼스(학장 이연보)는 이달 초 이들 파트너사들과 상호 협약으로 학생들에 대한 산업체 맞춤형 교육 및 우수 기술인력 양성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봇캠퍼스는 올해 1월 UR 인증교육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재학생 중 78%가 인증서를 취득하는 성과를

얻었다.

UR사는 전 세계 협동로봇 시장 점유율 50%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로봇캠퍼스에 국내대학 최초 '유니버설로봇 공인인증 교육센터(이하 UR 인증교육센터)'를 지원한다.

이내형 유니버설 로봇 코리아 대표는 "유니버설로봇사는 국내 21개 파트너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국내대학 최초 UR 인증교육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폴리텍 로봇캠퍼스가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연보 로봇캠퍼스 학장이 3일 열린 "UR 네트워크데이" 행사에서 다스코리아주식회사 등 4개사와 산업체 맞춤형 교육 및 채용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성원교역(주), 다스코리아(주), 이연보 학장, ㈜일렉트릭스, ㈜이티에스)

2021년 3월 개교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는 전국 유일 로봇 특성화 대학으로서 현장 맞춤형 교육 과정을 통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협동로봇 시장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로봇캠퍼스는 지난 11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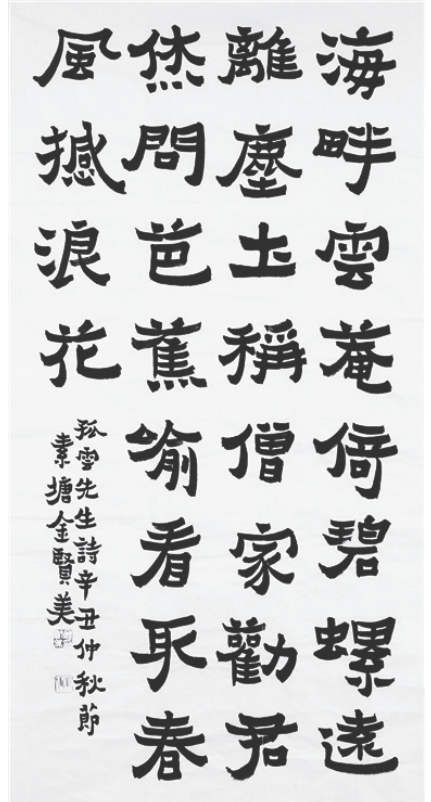
부터 ▲로봇기계과 ▲로봇전자과 ▲로봇자동화과 ▲로봇IT과에 수시2차 신입생 모집을 시작했다.

장지수 기자

금호읍 김현미 씨 문인화대전 대상

고운 선생의 時 '화금원외증참산청산인'

영천시 금호읍 김현미 씨가 지난



17일 '제30회 매일서예문인화대전'에서 고운 선생의 時 '화금원외증참산청산인'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씨는 금호읍주민자치센터 서예반이다. 이번 매일신문 시예문인화대전에서는 김 씨와 같은 서예반 백승표·임다현 씨 두명도 한문부문에 나란히 입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신문사가 주최하는 매일서예문인화대전은 전국 단위 공모전으로 한글, 한문, 문인화, 전각, 서각 부문으로 나눠 공모·시상한다.

이번 '제30회 매일서예문인화대전'은 총상금 1,100만원으로 대상(1명) 수상자에게는 500만원, 우수상(3명) 수상자에게는 각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대상을 포함한 입상작들은 12월 7일 오후 5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시상식이 열리며, 이날부터~ 12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25회 왕평가요제 '고해' 부른 서울 김성훈 씨 대상

金-대구 이세벽(여), 銀-경기 이해진(여), 銅-경주(필리핀) 말도말지(여)씨

제25회 왕평가요제가 '고해'를 부른 서울 김성훈(남, 24)씨가 대상을 차지하고 지난 17일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사)한국예총 영천시지부와 왕평가요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가요제는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47회 영천문화예술제와 연결해 예술제 마지막날인 지난 17일 본선진출자들이 영천시민회관 스타홀에서 수상자를 가려냈다.

모두 102명이 출전한 이번 대회는 앞서 추진위원회가 지난 10월 23일 비대면(동영상) 1차 예선에서 14명으로 압축하고, 지난해 본선에 올랐지만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면서 본선을 치르지 못한 9명을 합류시켜 10월31일 제2차 예선으로 12명을 가린 후 이날 본선에서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상에는 '고해'를 부른 서울 김성훈(남, 24)씨가, 금상은 '사미인곡'을 부른 대구 이세벽(여)씨, 은상 '목포행완행열차'로 경기도 이해진(여)씨가 차지해 각각 700, 300, 200만원씩의 상금과 상장을 받았다. 또 경주 거주 외국인(필리핀) 말도말지(여)씨가 '천년의 사랑'을 열창해 동상을 차지하는 기쁨을 토하는 등 장려상 및 인기·우정상 등 모두 12명이 시상대에 올

랐다.

한편, 왕평의 예술혼을 기리고 지역 향토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영천시가 199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이번 왕평가요제 예산은 1억원으로 김천중·김병철 작사·작곡가 6명이 심사를 맡았으며, 대상과 금상 수상자에게는 가수 자격증이 함께 주어졌다.

또 이번 왕평가요제 본선 경연은 오는 11월 27일(토) 12시 20분 TBC로 방영된다.



영천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국민 취미 생활 1위 낚시!
민물낚시의 성지 영천!
전국 최다 저수지를 보유한 영천!

낚시 관광자원의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피싱엠 낚시가 앞장서겠습니다.

영천 피싱엠 낚시
영천시 영화로 98
☎ 054) 335-3303

피싱엠 낚시하는 사람들!!
FISHING MEMBERS
www.fishingm.co.kr

제8회 영천대마기 전국종합마술대회 21일 성료

한국마사회 마(馬) 품평회
경주퇴역마·레저마·스포츠마 인기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8회 영천대마기 전국종합마술대회' 운주산 승마조련센터에서

지난 21일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장애물-50cm, -70cm, -90cm, 마장마술-F Class, 권승경

기, 크로스컨트리 등 박진감 넘치는 명실공히 전국 마술종합 승마대회로 자리잡았다.



특히 대회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는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2021년 제1회 통합 말 품평회(경주퇴역마/레저말/스포츠말)'가 연계돼 대회를 더 빛냈다.

한국마사회 품평회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마(馬) 중 그 분야 최고 마(馬)를 선발하는 경연 대회다.

경주퇴역마 품평회, 레저말 품평회, 스포츠말 품평회 순으로 150여 마필과 마주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가해 우수 마(馬)에는 상금 및 조련지원금이 지원됐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 내년 예산
또 사상 최대 갱신
1조 700억 원 규모

영천시는 2022년 예산안을 지난해 대비 9,053억원 보다 18.2%(1,647억원) 증가한 1조 7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2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1조원 이상 본예산 규모로는 사상 처음 이고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3년 연속이다.

또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본예산 1조원을 넘긴 지자체는 포항, 경주, 구미, 안동, 경산 등 7개 시에서 올해 영천시가 포함되면서 8곳으로 늘었다.

영천시는 일상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행복' 맞춤 예산에 중점을 두었다는 편성 이유다. 시 역점사업 적극 추진 및 투자사업 확대 등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8,234억원, 기타특별회계 23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719억원, 기금 1,517억원이다.

분야별 편성 규모는 ▲사회복지 분야가 2,106억원(25.6%, 164억원 증가)으로 가장 많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 1,289억원(15.7%), ▲일반공공행정 분야 860억원(10.5%), ▲교통 및 물류 분야 586억원(7.1%) 순이다.

주요 사업은 △영천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 100억원, △농민수당 80억원 △보현산관광벨트 권역사업 66억원, △완산상점가 주차환경 개선 45억원, △기후변화 대응 미래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30억원, △금호대창 하이패스IC 설치 20억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원 △신성일기법관 건립 13억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 36억원, △시청 동별관 증축 49억원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20억원을 편성했다.

한농연, 올해 한마음대회 축소... 회원 자녀 장학금 전달

(사)한국농업경영인 영천시연합회(회장 박진환)가 회원 상호간 결의를 다지는 한마음대회를 올해는 축소하고 대신 회원자녀에게 장학금을 전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는 22일 "매년 500명씩 모여 시행되는 제32회 회원 화합한마음 대회를 축소해 지난 19일 포항

보경사에서 70여명만 모여 산행으로 대체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대신 회원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것.

이날 연합회는 각 12개 읍·면·동 회원 자녀 12명에게 모두 36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단위 행사보다 회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 농업 발전에 더 정진할 수 있도록 회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모두가 동참했다"면서 올해 한마음 다짐대회 축소 이유를 설명했다.



영천시안미술관, 일상회복 프로그램 성료

영천시안미술관에서 진행한 2021 문화예술교육(경북지역 중년 대상) 프로그램 '놀이하는 인간'이 지난 19일 성료됐다.

지난 19일 미술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각 기수당 15명

을 매주 토요일 4기수로 구분해 모두 60여명이 참여해 감정조각·가면 만들기, 그림자놀이, 몸짓언어표현 등 다양한 활동으로 상호 소통의 시간으로 그동안 코로나19에 지친 비대면 일상으로부터 주민들이 활기를

되찾는데 중점을 둔 사업으로 이달 19일 약 6개월여 동안 대장정을 상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시안 미술관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로부터 향후 프로그램 재참여 여부와 프로그램의 만족 및 구성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참여희망 100%, 프로그램 만족도 '매우높음', 프로그

램 내용 구성 '우수'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시안미술관 문화예술교육사는 이번 프로그램이 "참여자 모두가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해 볼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면서 시안미술관이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즐거운 삶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장이 될것"을 강조했다.

영천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박씨 영천시 종친회 11대 회장에 박주학 직전 부회장이 선출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박주학

2021년도 박씨 영천시 종친회 임시운영위원회 개최

일시 : 2021년 11월 21일 (일) 11:00시
장소 : 박씨 영천시 종친회관 (영천시 야사동)
주요 안건 : 2021년 예결산, 2022년 사업계획, 집행부 교체 등 운영위원회 만장일치로 11대 종친회장 박주학씨 추대 지역 거주 영천시 박씨 3,800여세대 9,500여명

신임 박주학회장 수락 인사

"2022년 부터는 종친회관을 상시 개방 운영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종친회보, 인명록발간 등 활발한 종친회 활동으로 종중이 더욱 화합하고, 타 성씨와도 상호 교류하며, 봉사정신으로 영천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임 회장 박주학 드림>

기획 연재



김효정 기자

계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다하지 못한 효성이 불현 듯 생각나서 쓴 작품이다.

「조흥시가」

소반의 일찍 익은 흥시가 곱게도 보인다 유자(柚子)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 사람 없으니 그것으로 설워 하나이다.

중략...

수만 근 쇠를 늘려내어 길게 길게 노끈을 꼬아 구만리 먼 하늘에 가는 해를 잡아매어 북당의 머리 하안 양친 더디 늦게 하리다.

되찾아 태평시절이 오면 전선을 어선으로 바꾸어 풍월을 노래하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다.

「선상탄(船上歎)」

늙고 병든 몸을 수군(水軍)으로 보내시므로 을사년 여름에 진동영(鎭東營)에 내려오니 변방의 중요한 요새에서 병 깊다고 앓았으라 중략...

(환원씨는)무슨 일을 하려 배 만들기 시작했고 천만년 세월 동안 무한히 큰 폐가 되도록 넓은 하늘 아래 만백성의 원한을 길렀는가.

똑같은 배건마는 온갖 배 다르니 중략... 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바다 도적의 흉악한 꾀에 만고(萬古)의 수치를 안고 있어

그 백분의 일도 못 씻어 버렸거든 이 몸이 못났지만 신하가 되어 있다가 신하와 임금의 길이 달라 못 모시고 늙었는데 나라 걱정의 증성심은 어느 순간인들 잊을런가 중략...

하물며 이 몸은 손과 발이 온전하고 목숨이 이어 있으니 쥐나 개 같은 짐도독이 조금이라도 두렵겠는가? 비선(飛船)에 달려 들어 선봉을 거꾸러뜨리면 구시월 서릿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헤치리. 중략...

해와 달의 빛이 아침마다 밝게 비치니 전선(戰船)타던 우리 몸도 어선(漁船)에서 노래로 날 저물고 가을 달 봄바람에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서 성대(聖代)에 파도 없는 바다를 다시 보려 하노라.

가사문학의 대가 노계 박인로④

40대 무관이 느끼는 충정과 효심

붉은 감홍시를 보며 부모를 그리워하고 전선(戰船) 위에서 평화를 꿈꾼다.

노계선생의 개인사를 두고 대체로 두단계 무인(武人), 유인(儒人)으로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다. 반면 세단계로 구분한다면 그의 생애 태어나서 성장하고 수학하던 초반기, 무인으로 활약했던 중반기, 은퇴 후 선비로서 살았던 후반기로 나눌 수 있다.

39세 무관에 오르면서 40대에 문학의 기질을 뽐냈다. 전쟁 중에 그의 충정과 효심을 엿보려면 조흥시가 「선상탄」을 떠올릴 수 있다.

먼저 41세에 지은 시조 조흥시이다. 중국 삼국시대 오군인으로 6세난 육적(陸績)이 스승인 원술(袁術)을 찾았을 때 대접받은 굴 몇 알을 선생이 없을 틈에 어머니를 봉양하고픈 생각이 나서 품게 되었다는 고사에서처럼 노계선생도 한음 이덕형이 대접하려 내놓은 붉은 흥시를 보자 아버지에 이미 돌아가고 안



다음은 수능에도 출제되는 선생의 작품 「선상탄」이 있다. 선생이 45세 되던 해에 지어진 「선상탄」은 통주사로 부산에 바다를 방비하러 나갔을 때, 전문 67수 144구로 지어진 가사이다. 선생은 명령을 받고 진동영으로 갔을 때 병을 앓고 있었던 당시를 기록하며 배의 유래로 배를 만든 환원씨를 원망하는 내용, 해적을 날게 한 진시황의 원망과 배로 인해 흥취와 풍류가 있을 뿐인데 선생이 탄 배는 대검장창(大劍長槍)뿐인 관옥선임을 표현하며 바람을 쐬고 달을 읊어도 전혀 흥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국충정과 더불어 왜구의 항복을 재촉하며 평화를

아! 깨달으니 진시황의 탓이로다. 중략... 바다의 모든 섬에 감당하기 어려운 도적을 만 들어 두어 원통하고 분한 수치와 모욕이 중국에 까지 다 미쳤다.

죽지 않고 오래 사는 불사약을 얼마나 얻어내어 만리장성을 높이 쌓고 몇 만 년을 살았던고 남처럼 죽어 갔으니 유익한 줄 모르겠구나 중략... 바람과 달을 읊되 흥이 전혀 없는 것인가? 옛날 배 안에는 술상이 어지러웠지만 오늘날의 배 안에는 큰 칼과 긴 창뿐이로구나

선생은 명령을 받고 진동영으로 갔을 때 병을 앓고 있었던 당시를 기록하며 배의 유래로 배를 만든 환원씨를 원망하는 내용, 해적을 날게 한 진시황의 원망과 배로 인해 흥취와 풍류가 있을 뿐인데 선생이 탄 배는 대검장창(大劍長槍)뿐인 관옥선임을 표현하며 바람을 쐬고 달을 읊어도 전혀 흥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국충정과 더불어 왜구의 항복을 재촉하며 평화를 되찾아 태평시절이 오면 전선을 어선으로 바꾸어 풍월을 노래하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다.

보현산댐 출렁다리 위해 충남 예당호출렁다리 다녀왔다

영천시의회, 집행부 직원과 우수 관광시설 벤치마킹

일명 출렁다리 보현산댐인도교가 국내 최장 예당호출렁다리의 장점을 담을지 주목된다.

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는 지난 15일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영기) 주관으로 영천시 관광과 직원 등 10여명과 국내 최장 길이 충남 예당호출렁다리 우수사례 벤치마킹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벤치마킹은 보현산에 설치되는 보현댐출렁다리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선진지 견학이다.

예당호출렁다리는 길이 402m, 폭5m, 주탑높이 64m, 성인기준(70kg) 수용인원 3,150명, 풍속 35m/s 내진설계 1등급으로

국내 최장 출렁다리다.

특히 전망대 끝의 투명유리로 발 아래 호수를 볼 수 있는 전망대와 길이 44m, 높이 8m 인공폭포, 80m의 벽천수 온천 외에 조각공원과 공연장 등과 거대 호수의 풍광이 어우러져 천에 관광자원화 되어있다.

반면 보현산출렁다리는 총 175억원이 투입돼 길이 350m, 폭 1.8m, 주탑높이 52m, 수용인원 4,000명, 풍속 50m/s내진설계 1등급과 주변 주차장, 수변광장을 조성한다.

견학 후 이영기 총무위원장은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면서도 다른 지역에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관광자원들을 개발해 하나의 벨트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김제 벽골제에서 영천 청제비 세계문화유산 길 연다



영천시의회, 지난 16일 김제 벽골제 역사문화 벤치마킹

영천시의회가 16일 보물 제517호로 지정돼있는 영천 청제비(淸提碑) 국보 승격과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김제 벽골제를 선진지 견학하고 돌아왔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영천 청제비 국보 승격과 청제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방안 연구모임(대표의원 최순례)’ 주관으로 조창호 의원과 문화예술과 직원 등 1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문화해설사가 참여해 김제시 대표 저수지인 벽골제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관리하는 벽골제 아리랑사업소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살폈다.

또 신라시대 저수지 영천 청제비와 청제비

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벽골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김제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 의미도 있다.

이날 벽골제 발굴조사 현장과 수문인 장생거와 경장거 등 제방, 유물을 전시하는 농경문화박물관, 역사문화단지 내에 있는 아리랑박물관, 농경사 주제관, 벽천미술관 등을 차례로 방문해 벽골제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상황과 운영 현황, 벽골제 중수비의 상황 등 김제시의 문화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돌아왔다.

최순례 대표의원은 “이번 벽골제 현지 실태 조사를 통해 장차 청제비 국보 승격과 청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위드(With) 코로나 이후 경북교육 어떻게 달라질까?

[인터뷰 / 임종식 경북교육감]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동시에 교육 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이다"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학교와 유치원 등 각 교육현장에도 위드(With) 코로나를 대비하고 있다. 사전국지역신문 대구·경북협의회(회장 하정태)가 위드(With) 코로나19 시대 안전한 교육에 몰입하고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을 만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북교육 프로그램의 변화를 비롯해 교육결손 극복 및 학교폭력 등 다가올 단계적 일상회복 교육 현안을 짚어봤다. [편집자]

[Q]: 사전국지역신문 대구·경북협의회 공동 취재반, [A]: 임종식 경북교육감

[Q1].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습격차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스스로 학습성취인증제'에 대해 설명해 달라

[A1]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기초학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3단계 학습 안전망으로 꼼꼼히 챙기고 있다.

먼저, 1단계 안전망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두레교사제)를 시행한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목적으로 정규 교사를 추가 배치해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수업 내에서 담임교사와 협력하여 지원하는 제도다.

2021학년도 지원인원은 57명이며,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저학년 학습 부진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국어·수학 수업에 1수업 2교사제 형태로 참여한다. 필요 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따로공부방 운영도 가능하다.

2단계 안전망으로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습지원대상학생 및 경계선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사다리 교실을 운영한다. 아울러, 초3학년부터 고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중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의 일환으로 두드림 학교를 240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습부진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한다. 초1~2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옹호학교를 신설해 119개교 운영한다.

3단계 안전망으로 동서남북 4개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소속된 학습코칭단 176명이 각급 학교의 학습지원대상 학생들과 매칭되어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대상을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학습자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상호작용을 지향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개별 맞춤형 평가 시스템인 '스스로 학습성취인증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스스로학습성취인증제는 학생 스스로 도전하는 온라인 평가시스템으로 개별 맞춤형 학업 성취지원을 위해 경북교육청에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개통한 시스템이다. 개통 1년이 된 현재 누적 접속자가 200,110명으로 20만명을 돌파했다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 대상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과목에 대해 55,000여 문항의 자율평가, 단원평가를 제공하고 있다.

[Q2]. 최근 모든 학생의 교육결손 극복을 위한 '따뜻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셨는데 주요 내용은?

[A2]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육결손은 큰 걱정거리다. 홍콩과기대 김현철 교수는 코로나19 휴교에 따른 향후 80년간 국내 총생산의 손실 규모를 3천조가 넘을 거라고 예측했다. 학력저하, 심리·정서적 불안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이번 '따뜻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모든 학생들의 교육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 경감도 적극 고려했다.

'더 꼼꼼한 교육결손 회복, 더 촘촘한 맞춤형 지원, 더 탄탄한 교육여건 개선' 3개 분야로 추진되며, 올 하반기부터 2023년 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다.

국고 8억 원, 2회 추경 1,487억 원과 교육부 5차 특별교부금 122억 원 총 1,617억 원을 확보해 2학기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을 위해 집중 지원한다.



먼저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유치원과 모든 학생에게 '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비' 30만 원, 총 885억 원을 지원했다.

학생들의 학습결손 회복 및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인 '우리 반 희망 사다리 교실'을 운영한다. 희망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04억 원을 지원한다.

유아·취약계층에게는 더 촘촘하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모든 유치원에서 유아 및 학부모 대상 심리 정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비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놀이 자료 구입비 지원 및 놀이중심 교육과정 환경 구축을 통해 신체 건강 회복에도 온 힘을 쏟는다.

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2억 6,000만 원 규모로 교수·학습용 보조 공학 기기를 지원하고 장애 학생의 학교 생활 지원 및 통합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학교 장애 학생에게는 문화체험활동비와 활동복 구입비, 일반학교 장애 학생에게는 어울림 행사비로, 총 12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원격수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다자녀 가정 희망양육 한시 지원금도 총 88억 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힘을 쏟는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원의 심리적 회복과 치유를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며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

학교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교육회복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그간의 원격교육 경험을 토대로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도 95억 원의 예산을 학교로 지원해 하나씩 하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교육회복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회복 종합방안 추진 상황을 총괄하고, 학교 현장을 도울 방침이다.

[Q3]. 교육부 주관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온학교'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온학교'에 대한 소개?

[A3] '온학교'는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매일 저녁 실시간 수업을 하는 상시적인 온라인 학습 지원 플랫폼이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교과는 '실시간 수업'을 하고, 영어, 통합교과는 '스스로 학습(콘텐츠와 과제 중심 자율 학습)'으로 운영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초등학교의 자기 주도 학습력 신장은 물론 사교육비 경감, 방과후 학생들의 건전한 가정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현재 구독자 수 4,050명, 수업 영상 조회 수 30만 뷰를 넘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우리도 이외의 다른 시도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어 전국 단위 우수 정책으로 각광 받고 있다.

지난 9월 6일부터 2학기 '온학교' 실시간 수업을 시작했다. 경북 초등학교 100여명이 참여해 매일 저녁 7시부터 주요 학습 내용 되돌아보기로 수업을 한다. 실시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언제든지 '다시보기'로 공부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학습격차 해소 및 미래교육의 모델로서 '온학교'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문 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온학교' 운영의 핵심인 실시간 수업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온학교'참여 교사에 대한 인사 및 재정적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Q4]. 최근 경북의 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A4]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안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기존의 예방교육 강화와 더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 프로그램)을 연간 6차시 이상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도내 923 전 학교, 전 학급에 교과나 창체시간을 활용,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12차시 이상 운영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예방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 예방교육 및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교육주간, 자율 동아리, 친구사랑데이 등 어깨동무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건전한 또래 문화 조성을 위한 또래상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조기 감지를 위해 수시 상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책임교사, 관리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위원장 등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예방 노력과 함께 사안이 발생할 경우 법과 매뉴얼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사안처리를 하도록 안내하고 처리의 전 과정이 교육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 보급 및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대사안 발생교와 기숙사 운영교 등은 정기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중심이 된 두드림팀을 운영하여 근절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피해학생 치유 지원을 강화하고 관계회복을 통해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Q5]. 다양한 '나라사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소개?

[A5] '나라사랑 교육 프로그램'은 경북 지역의 독립운동가와 순국선열들의 사적지와 유적지 현장을 답사하며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직접 탐방하는 범교과수업과 체험학습 연계 교육프로그램이다.

초등학생들의 '독립운동길 탐방'은 학교 주변의 독립운동가 사적지를 선생님과 함께 현장체험활동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43개의 초등학교를 독립운동길 탐방 공모학교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중학교 학생들은 '사제동행 나라사랑 학습동아리'를 통해 학교 주변의 시·군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사적지와 유적지를 답사하고, 고등학생들은 전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의 유적지를 돌아보고 역사수업과 연계해 독립운동가의 활동에 대해 토론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고등학교 '사제동행 나라사랑 학습동아리'는 26개 학교를 공모해 지원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독립운동길 순례'로 중국 동북 3성과 하얼빈까지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탐방을 시작으로 매년 독립운동길 탐방을 하고 있다. 이 탐방은 학생들이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선열들의 자유와 독립 의지를 기억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역사·평화 의식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Q6]. 끝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한 말씀!

[A6] 코로나 과정에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가는 힘은 교육이다. 배움이 곧 삶의 단단한 근육이 되는 교육, 살아있는 경북교육을 하려한다.

'학여역수(學如逆水)'라 했다. 배움이란 마치 물을 거슬러 배를 짓는 것과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쳐진다는 말이다. 흐름을 따라가는 경북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경북교육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특별기고



김유미 소설가

소설가 김유미 작가가 바라보는 '소설같은 대한민국' (59)

예측이 현실이된 3.9대선 부정선거

본지 특별기고 글잡이인 장편소설 '화려한 이별' 작가 김유미(문학박사) 정의실천연대 이사장의 논고가 갈수록 거칠어지고있다.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김 작가의 소설같은 大韓民國(59)편에서는 그동안 자행되어 온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대한 노골적인 증착점을 예시한다. 하지만 이를

지켜야할 주인이 없다. 김 작가가 피를토하는 이유다. 편집자인 나 또한 이에 반하지 않는다. 다음은 김유미 작가의 소설같은 大韓民國(59)편 원문이다.[편집자]

나는 음모론자가 아니다. 팩트에 기반을 둔 예측을 할 뿐, 거짓말도 아니다. 지난 4.15부정선거 증거들이 인천 연수구와 오산시 재검에서 드러난 것은 4.15총선이 이미 총체적 부정선거였음 여실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정도면 4.15총선은 무효가 되고, 관계자는 처벌받고 총선이 다시 치뤄져야 정상국가다.

이재명 후보가 온갖 구설수에 휘말려도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부정선거를 믿기때문이다. 캠프에 4.15부정선거의 브레인 양정철이 돌아왔고, 20년 장기집권을 선포한 이해찬이 합류한 것이 그 증표다. 4.15총선에서의 부정선거가 소극적이었다면 내년 3.9대선에서의 부정선거는 보다 더 적극적이 될 공산이 크다. 인천 연수구와 오산사에서 보여준 재검표 과정에서의 형상기억종이를 운운한 중앙선관위의 괴변을 늘어놓지 않아도 되는 방법

을 강구할 것이다.

180석으로 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전자투표 실시를 위한 입법을 끝마쳤다. 다시말해 지난 1월 대선에서의 선거방법으로 전자투표를 준비했다는 말이다.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지난 7월 사기방역 4단계였다. 4단계로 이미 국민들의 저항 수준을 가늠했다. 5단계로 가더라도 저항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이제 일일감염자 숫자를 5,000명으로 올려놓고 일주일간 지속시키면 5단계로 간다. 타이밍은 내년 1월 초중순이 될 것 같다. 중증환자가 치료병실 75%를 차지하는 중증환자 총량제도 이미 예고 했다. 이때가 바로 코로나 비상사국(코로나 계엄) 선포다.

이 모든 것이 전자투표를 강행하기 위한 수순이다. 여기에 언론이 대대적으로 공포심을 심어주고 전자투표 실시에 대한 당위성을 선전할 것이고 국민들은 선동될 것이다. 정권을 잃으면 안될 처지에 놓인 자들에게 못할 짓이란 없다. 그러나 국힘당은 4.15총선의 부정선거도 나몰라라 하는 마당이다. 이럴진대 어찌 3.9대선에

서 벌여질 부정선거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하겠나.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를 막자고 아무리 고함쳐도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하다. 국민 주권을 지키는 것은 정권교체보다 더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에 부정선거가 개입되면 그 선거는 하나하나다. 만약 부정선거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공산화의 길로 간다면 국힘당은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대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국민 저항권마저 포기하게 만든 기망죄, 그 죄를 어찌 감당하려고 하는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누가 있어서 부정선거를 막아낼 수 있는가? 누가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는가? 과연 여명의 빛줄기가 어둠을 뚫고 나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김유미 작가▶저서로 욕망의 가시(2), 화려한 이별(2), 복희, 귀환, 아는 여자 등 다수가 있다. 김 작가는 1960년생, 부산 출생으로 부산대학교 경영학 전공,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독자기고



김재훈 영천소방서장

난방용품 안전수칙 준수는 내 가족의 안전

본격적인 겨울을 알리는 입동(立冬)이 지나고 옷장에서 겨울 외투를 꺼내 입다 보니 문득 겨울이 찾아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창고에 보관했던 전기장판, 히터 등 난방용품 꺼내 사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난방용품의 사용 증가와 비례하여 화재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외부활동이 감소하고 가정

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가정 내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점유율이 매우 높다.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난방용품 사용하기 전 주의사항을 항상 숙지해야 한다.

숙지사항으로 △단락(합선)에 의한 화

재가 주된 원인이 되므로 전기 열선을 접거나 과한 압박자제 △사용하지 않는 제품 전원 차단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 사용 등이 있다.

시민들의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시민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희망한다.

[책]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저자 이희천 교수

「농촌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자치 기본법」

지난 23일 오후 4시부터 영천시민회관에서 김제동·도을 김용욱·소빈 박진도 '영천농민회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주관은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개벽 영천대행진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다. 이들은 농촌개벽을 위한 3대 강령과 행복한 농촌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 5대 전략의 마지막 핵심이 바로 '농촌주민자치의 실현'이다. 이 교수의 책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과 무관하지 않다.

이희천 교수는 경북 의성군에서 태어나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2016년 퇴직 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지금은 재야에서 대한민국 체제의 위기실상을 연구하고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구국제자훈련원 원장 등의 명함을 갖고있다. 교수 시절 그는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헌법정신에 입각한 국가·역사관 등 공직가치 분야를 가르쳤다. 한 때 이 교수는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을 저술해 일약 '안보스타'로 떠올랐다. 경북대 법과대학 행정학과,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국정원과 순환교수로 인연을 맺은 이 교수는 '벼랑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저술한 양동안 교수의 제자이면서 작금 대한민국의 위기앞에 안보 강연

자로 또다시 이름을 올렸다. 최근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을 저술하면서 좌파들과 또 한번 투쟁 대열에 발을 디뎠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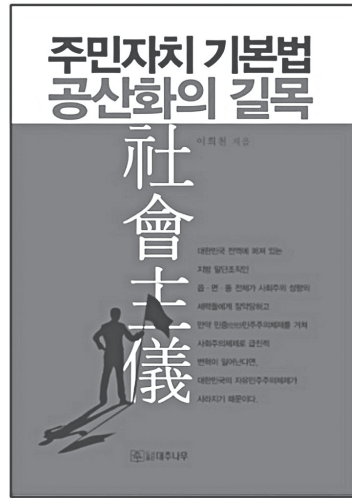
이 책에 앞서 2021년 1월 29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발의)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을 놓고 자유우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바로 이희천 교수도 "겉으로는 평온한 법안처럼 보이지만 법안발의의 속내는 정 반대라는 결론을 내려 이를 근원적으로 해부하는 서책을 집필했다.

[다음은 이희천 교수의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소개]

작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다. 그런데, 무슨 위기냐고? 경제·정치 위기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허물어지는 체제 파멸적 위기다.

안타깝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같은 위기감을 못느끼고 있다. 이유는 뭘까? 위기감을 있지만, 내 눈 앞에 펼쳐지는 급박한 위기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드디어 국민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 지방 최하부단위인



“새마을 운동이 자발적 참여라면... 주민자치기구 = 좌파사상 동네 심는 사회주의 입문”

읍·면·동 단위마다 좌파 성향 세력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라는 이상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는 시도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1년 1월 29일 발의된 주민자치기본법이 그것이다.

이 법(주민자치기본법안)에 따르면,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방의원은 물론 국회의원도 갖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에 대한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까지)를 중앙정부기관(산하 기관 포함), 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이는 대통령도 갖지 못한 권한이다.

주민자치회는 하부에 읍·면·동 사무소

와는 별도로 통, 리, 마을별 소조직을 설치하여 세밀히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서로 얼굴을 아는 마을사람들끼리 밀착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자치회 소속 주민에는 주민등록이 된 주민뿐 아니라 일정조건의 외국인,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직원, 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 각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등도 포함된다. 이로서 민노총, 전교조 등 전국 규모의 좌파단체들도 주민자치회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법이 실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면·동 단위에서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6.25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남한 각 마을을 점령했던 3개월 동안 경험했던 인민위원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때가 되니 이웃이 무섭더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 책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은 주민자치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주민들이 마을에서 겪을 상황을 생생히 분석했다. 이 책을 읽기만 하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체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국민 속으로 전파된다면 국민 대각성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이희천 교수의 주요 저서: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분류한국사』, 『한국사』, 『국가정보학』(박영사, 공저),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 『6.25동란과 트로이목마』, 『교양분류한국사』,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공저) 등이다.

동정

[이만희 의원] 철저한 국회 예산 심사



국회 여·야는 오는 12월 2일 법정시한까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를 마친 정부 예산안에 최종 증액 및 감액을 두고 치열한 전쟁 중이다.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인 이 의원은 정부 선거·선심성 사업을 강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예산조율의 관문인 예산안소위 활동 중에도 지난 17일 조대희 폴리텍대학 이사장을 접견하고, 영천로봇캠퍼스 현안을 논의하는 등 숨겨진 국회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구대교 건설공사 착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4일 하루 1만대 이상 오가는 강구대교 건설 첫삽(착공식)을 뜨고 영덕 최대 숙원사업 한가닥을 풀었다. 이 지사는 영덕 강구항 삼사리~강구리를 횡단하는 길이 527m 교량과 접속도로를 포함해 총연장 1.5km를 신설하고 2026년까지 4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지사는 이날 “영덕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최기문 영천시장] 죽림사 주지스님과 힐링토크



최기문 영천시장은 오는 28일(일) 오후 1시 유봉산 죽림사에서 열리는 가을산사음악회에 참석해 주지스님과 힐링토크쇼를 갖는다. 이날 참여할 시민은 백신 접종 완료증명서(2차 접종 후 14일 경과) 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죽림사 측은 “질·답변으로 최기문 시장이 바라보는 힐링의 의미를 들여보는 시간이다.”고 밝혔다.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 제220회 정례회 개최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은 오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제220회 정례회를 개최해 지난 22일 영천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1조700억원을 심사·의결한다. 조 의장은 “지역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신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꼼꼼히 따져 심도있게 심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수산업 발전과 어촌현안 해결 기여한 공로 인정 받아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수산업 발전과 어촌현안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10월1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2정책조정위원장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 등 국내 실물경제와 관련된 국민의힘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당직을 맡아 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무분별한 해상풍력 남발의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국민



들게 돌아갈 것이라며 해상풍력발전의 민낯을 밝혀냈다. 또 해양수산과 관련해서는 실적 위해 글로벌 뒤쳐지면 제3의 위기 온다고 강조하고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 통합물류서비스 확대로 경쟁력 강화 촉구하고 포스트 해운재건을 독촉하는 등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의 어업인 참여방안 △수산자원 회복사업의 실효성 점검 △TAC 산정 기준 보완 △부

산 등 항만 발전방안 등 해양과 수산분야 전반에 걸친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제시로 주목을 받았다.

한수연은 2만7천여 회원을 보유한 전국 최대의 수산경영인 모임으로, 국내 수산업 발전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선도적 단체다.

이번 이만희 의원의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소득향상에 적극 앞장섰고, 각종 정책제언으로 수산업과 어촌현안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한결같이 믿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영천·청도 시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예산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피력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미용협, 미용경기대회 참가 15명 ‘전원 수상’ 쾌거

경북지역 미용사 220명 출전 영천 금상(5), 은상(11), 동상(1)

(사)대한미용사회 영천시지회(지회장 김안숙) 회원 15명이 지난 16일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3회 경북도지사배 미용경기대회에서 참가인원 전원이 수상하는 실력을 보였다.

이번 대회는 헤어·메이크업 총 23개 종목에 22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실력을 겨뤘. 영천은 금상 5(경상북도지사상), 은상 11, 동상 1(대한미용사회중앙회 경북도지회상)을 차지했다.

수상자 명단 ▶결말음 부문, 금상 김태자(태자미용실), 은상 김영미(다온미용실)·권순화(헤어봄봄)·이옥자(동지미용실) ▶반영구 메이크업(엠보) 부문, 금상 김준옥(신세계헤



어, 은상 김태자(태자미용실)·정순분(정은미용실)·김필연(김샘헤어존)·배태순(평인미용실)·서선미(늘해랑) ▶이브닝스타일 부문, 금상 박혜경(헤어플러스미용실) ▶창작트레머

리 부문, 금상 박정혜(송죽미용실), 은상 김자옥(노랑머리)·조경옥(아름다운사람들) ▶창작쪽머리 부문, 금상 서선미(늘해랑), 은상 김희(헤어플러스미용실)

(주)이비채 추성태 대표, 제26회 농업인의 날 ‘국무총리상’

임고면 농업회사법인 (주)이비채 추성태 대표가 제26회 농업인의 날 기념 정부포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지난 19일 영천시청에서 전수식을 가졌다.

추 대표는 농산물 한방 기능성 식품 연구·발로 동남아 등에 수출하여 판로를 개척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추 대표는 이날 수여식 후 농업 관련 단체 대표자 친목회와 함께 영천시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영천시청 태권도단, 국가대표 선발 강보라·강미르 자매 나란히

영천시청 태권도단 강미르·강보라 자매가 나란히 태권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영천시는 두 자매가 지난 12일부터 3일간 경남 함양군 고운체육관에서 열린 2021년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선발 최종대회에서 강미르 선수가 여자부 -46kg급, 강보라 선수가 -49kg급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해 국가대표 1진에 동반 선발되는 쾌거를 이뤘다.

강미르 선수는 결승 경기에서 무결점 경기를 펼치며, 중고생 시절 주니어 국가대표 이후 생애 첫 성인 국가대표에 선발됐고, 강보라 선수는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획득했다.



영천축협 조규수(회원) A++... 고급육(肉) 경북 최고 챔피언 등극

구교진 회원, 경산2부 부문 우수상

영천축산농협(조합장 김진수) 조규수·구교



진 두 회원이 경북 최고의 한우와 한우고기를 가리는 경북한우경진대회서 챔피언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영천축협은 지난 10일 예천군 한천체육관에서 열린 “경북한우경진대회”에서 조규수 회원이 도축 거세우(牛) 육질 품평회에서 최고 A++ 등급을 받아 고급육 부문 경북챔피언상을 수상했으며, 구교진 회원은 암소 중 새끼를 2~3배(회) 낳은 경산2부 부문에서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북도와 예천군이 주최

하고 전국한우협회가 주관해 경북 최고의 한우와 한우고기를 가리는 대회다. 도내 시·군에서 110두의 혈통 등록우가 출품돼 고급육, 암송아지, 미경산우, 경산1부, 경산2부, 경산3부 등 5개부문에 이 중 영천축협 회원은 고급육, 경산2부 2개 부문을 석권했다.

특히 대회 시상은 유전형질이 검증된 우수한 개체 중에서 질병검진과 친자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개체들만 출품했으며 외형심사 및 비교심사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순위가 결정됐다.

김섭 변호사의 法鏡



대표 변호사 김 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할부거래(핸드폰·방문판매 등) 계약철회 요건

상품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신·할부·방문은 14일 이내

청약(계약)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유념

문 저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하여 현장에서 포장을 개봉하고 개통을 하였는데, 당일 다른 대리점에 가보니 더 마음에 드는 핸드폰이 있어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한다. 청약철회가 가능할까?

답 소비자가 할부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비자가 아직 구매물건을 받지 않는 때는 할부거래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구매물건을 받은 때는 물건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함으로써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제외), ② 사용 또

는 소비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③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④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 그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물건을 할부로 구매한 후 7일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또는 다단계 판매에 의해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도 할부거래의 경우와 유사하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인터넷 등의 전자상거래나 통신 판매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도 할부거래나 방문 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와 유사하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귀하의 경우, 박스를 개봉한 경우와 달리 개통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중고폰으로 전락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에 의해서는 청약철회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변호사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8-6, 성광빌딩 406호
전화 053)755-7500

세무



윤영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실비변상적 급여의 근로소득세 범위

출장경비의 과세·비과세 구분

자가운전보조금 월20만원 내...비과세

시내출장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를 매번 정산받기가 번거로워 회사 규칙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월 20만원의 자가운전비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외 출장업무가 발생하여 출장에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추가로 회사로 정산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할까? 오늘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본다.

자가운전보조금과 같은 성질의 급여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하는 경비상당을 지급받는 부분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실제소요경비 상당액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종류 및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대표적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로는 자가운전보조금, 일직 및 숙직료,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 기자의 취재수당,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벽지수당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자가운전

보조금은 종업원 등이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행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주차비 및 유류대 등 시내 출장에 실제 소요된 경비를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대신 회사의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 된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명의차량이어야 하고 이륜자동차도 대상이 된다. 또한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하는 회사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종업원이 시내출장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출장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나, 추가로 수령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위 사례에서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시외출장의 경우 실제 경비를 입증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비과세되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로 해서 비과세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과 같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 방식과 유형에 따라 비과세인지 과세인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인쇄인(취종양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취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사설]

큰 절까지 하고 예산까지 퍼 주어서야
시민 혈세 막무가내 퍼주기 포퓰리즘 DNA

의회=집행부 아니라면 예산 심사에 가시는 때야

영천시의회가 집행부(영천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감시가 아닌 오히려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영천시는 지난 20·21일 이틀간 열린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 '은빛음악회'와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제' 두 행사에 무려 2억7,800만원을 지원해 과다지원 및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지원 논란을 불러왔다.

이름도 비슷한 두 행사가 문화제인지 음악회인지 구분도 없이 이를 연이어 열리고 행사 한 가운데 사찰 개별행사인 창건 기념 '개산대제'가 포함돼 쪼개기 눈가림 집행 의혹마저 든다. 더욱 놀랄 일은 시민의 대표인 자치단체장이 그 행사에 참석해 손님에게 큰절까지 하고 예산까지 듬뿍 지원했다면 분명 돌아오는게 없지는 않을게다.

대중 가수들을 불러 흥겨운 노래로 끝나는 '은빛음악회'는 당초 2017년 5천만 원에서 올해 7,800만원으로 경총 뛰었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없었던 '은빛문화제' 예산은 올해 본예산도 아닌 제1회 추경예산으로 긴급 편성했다. 올해가 사실상 첫 행사인데도 무려 2억원이나 지원해 타행사(영천문화제 1억, 왕평가요제 1억 등)와의 형평성 논란까지 낳았다.

이 예산은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 총무위원회 회의록에는 단 한줄도 이견이 없다. 집행부 담당 조차도 해명 불가다. 표가 많은 특정 종교의 요구에 '아닌건 아니다'는 말 한마디 못했다. 선거를 의식한 영천시의 퍼주기 '나몰라' 예산 편성에 의회가 묵시적 수용으로 시민의 혈세를 표와 맞아꾸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같은 '나몰라' 예산은 이뿐만 아니다. 앞서 영천시는 지역 특정 아파트 주민의 야간 불법주차수요 외에는 특별한 주차수요가 없는데도 2억원을 들여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하에 대규모 주차장을 신설해 특혜성 시비와 예산 낭비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서도 시의원들은 말이 없다. 이 외에도 선심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곳에 묻지마 예산집행으로 시민의 혈세를 허투로 쓴 흔적은 차고 넘친다.

올해 11월 행안부가 발표한 2020년회계연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자치단체 평균 통합재정지수는 -8.7조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영천시 2021년 재정자립도는 14.2%에서 올해 12.2%로 내려앉았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에 세금 새는 구멍마저 송송 뚫려 있다.

선거 때마다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고, 자치단체장이 취임한 후에는 비리가 끊이질 않는다. 재임기간에 사법 처리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나홀로 청렴을 외치고 있지만 부도덕한 리더십에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맞물리니 지방재정이 건강할리 없다.

올해 영천시 예산은 역대 최대인 1조 1,773억원(제2회 추경)으로 복지예산을 제외하고도 경로당, 시민불편해소 등 선심성으로 변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에만 185억 원이 투입됐다. 공무원은 2021년도 1,075명에서 31명 늘어난 1,106명. 인건비만 1,348억원(2021년 기준인건비)에 이른다. 영천시 내년 예산편성 기준으로는 지방세수(약 800억원)로는 순수 인건비(983억원)마저도 지급하지 못하는 열악한 살림이다. 2020년 결산 규모로는 사상 유례없는 12조 9,910억원으로 市 살림살이 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2021년 기준 영천시 보조금단체 숫자는 754개다. 여기에만 무려 580억원이 투입된다. 자원봉사가 자원봉사가 아니다. 행사 실비도 대부분 시민혈세로 지원된다. 영천시와 시의회가 한 통속이 아니었다면 이럴수는 없다.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 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의회는 말 뿐이었다. 행사성 및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줄여 가급적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지 못할 지연정 선출직들의 표를 갈구하는 과다한 선심성 행사 예산은 시민혈세 도둑질이다.

영천시는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 중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일하는 예산 비중이 44.5%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하위 4번째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 재산 또는 수익에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는 2018년 시민 1인당 67만6천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76만5천원으로 뛰어 일은 적게하고 세금은 더 늘어 시민들의 허리는 더욱 휘고 있다.

영천시는 지난 22일 내년 본예산을 1조7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영천시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 규모 사상 최대다. 市는 3년연속 1조원 시대를 자랑하고 있다. 영천시의회는 25일부터 12월21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된다.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어려울 만큼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표가 되는 사업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는 잘못된 행태가 지방자치체가 낳은 가장 큰 부작용의 하나다.

막무가내 퍼주기식 포퓰리즘 DNA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병들게 하는 형태가 되지않길 바란다. 시의회 집행부 편들기도 이제 끝내야 한다. 의회는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인지,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는게 시민이 맡긴 당연한 책무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들은 내년 집행부 예산안에 가시늬를 떠야 한다. 그동안 시의회가 집행부인지 시민의 대변자인지를 의심받는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할지 시민들은 반드시 지켜볼 것이다.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동)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영천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조	합	장	정낙은	이	사	이영준
이	사	신현도	이	사	최갑수	
이	사	한상조	감	사	이희진	
이	사	박경란	감	사	최경열	
이	사	박운하				



영천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위치 : 영천시 완산동 1433번지

e-편한스퀘어
분양 및 임대문의

1층 (각17평) 6칸

- 약국, 편의점, 베이커리, 커피, 각종 프랜차이즈

2층 (120평)

- 병원, 학원, 음식점, 편의시설, 각종 프랜차이즈

3층 (임대완료)

시행 : (주)운포개발 / 시공 : (주)태백건설 / 문의 ☎ 010-3030-4449

영천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화남면 다목적회관 목욕탕 운영!

운영위원장	조규창
부위원장	이창락
사무국장	안호근
감사위원	권세규
운영위원	정태화
운영위원	조문찬
운영위원	이도훈



2021. 9. 2. (목)~ / 운영시간 06:00 ~ 21:00(오후 9시까지)

화남면 다목적회관운영위원회